

■ 주요 기사

○ 최저임금 결정 관련 (3건)

한경	김해영 더민주 의원 “최저임금위에 청년 참여해야”
	[한경에세이] 최저임금의 세 가지 문제점
한겨레	“숫자놀이 매몰” “소상공인 외면” 회의장 박차고 나왔죠

○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2건)

동아	임종룡 “은행 성과연봉제, 노조 직접 만나 설득”
매경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런던처럼 금융허브 가능”

○ 공공기관 100억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관련 (1건)

경향	공공기관 발주 100억 이상 공사도 ‘직접시공제’ 추진
----	--

○ 가습기살균제 특위 및 에어컨 필터 등 추가 유해화학물질 검출 (4건)

조선	옥시, 폭발사고 일으킨 에어컨 세정제 리콜
중앙	[간추린 뉴스] 가습기살균제 특위, 오늘부터 현장조사
동아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25일부터 현장조사
매경	환경부·기업 엇박자에 비틀대는 ‘유해항균필터’ 교체

○ 저출산고령화 관련 (4건)

중앙	리센롱 “애 낳아라” 연설 때마다 잔소리
	대만엔 결혼·출산 미룬 22K세대…대학 정원 미달 본격화
	아베, 소비세 올려 늘어난 세수…저출산·고령화 예산으로 사용
	“청와대 저출산 전담수석이나 총리실에 담당 차관 뒀야”

■ 주요 칼럼 · 사실

○ 귀족노조 집회 관련 (3건)

조선	[사설] 연봉 1억 ‘귀족 파업’, 언젠가 현대차 노조 땅 치는 사태 온다
매경	[사설] 민노총 총파업·각종 시위로 얼룩진 주말 서울 도심
한경	[사설] 청소 따위는 하청주면 그만이라는 귀족노조 집회

○ 에어컨 필터 등 유해물질 검출 관련 (3건)

중앙	[사설] 이제 항균필터에도 독성물질…국민은 불안하다
매경	[사설] 소비자 안전 외면 이케아 엄격한 잣대로 조사하라
경향	[사설]선부른 에어컨 필터 유독물질 공개, 불안만 키웠다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 목	[사설] 연봉 1억 '귀족 파업', 언젠가 현대차 노조 땅 치는 사태 온다 A35면
		내 용	현대차 노조가 '괜찮은 직장'을 찾는 젊은이들의 꿈을 꺾고 있음. 지금처럼 가면 5년, 10년 뒤엔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 타의에 의해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임금·복지를 줄이는 상황에 몰릴 수 있음.
	고용 복지	제 목	옥시, 폭발사고 일으킨 에어컨 세정제 리콜 A12면
		내 용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옥시레킷벤 키저는 최근 가정집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에어컨 세정제인 '옥시싹싹 에어컨 청소당번'의 모든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음
중앙	고용 복지	제 목	리셴룽 “애 낳아라” 연설 때마다 잔소리 A1면
		내 용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8년 먼저 인구 유지선(21명)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한국보다 19년 앞선 1987년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음. 현재 국가인구재능부(NPTD)라는 전담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제 목	대만엔 결혼·출산 미룬 22K세대…대학 정원 미달 본격화 A4면
		내 용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은 1980·90년대만 해도 고도성장을 하면서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음. 4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18~1.24명임
		제 목	아베, 소비세 올려 늘어난 세수…저출산·고령화 예산으로 사용 A4면
		내 용	일본은 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부엔 1억총활약추진실과 자녀육아본부 가 있음. 두 곳의 책임자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 勝信·61) 장관임
		제 목	“청와대 저출산 전담수석이나 총리실에 담당 차관 뒀야” A5면
		내 용	일본·싱가포르 등이 정부 내에 ‘저출산 별동대’를 꾸려 총력을 기울여온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음
	환경	제 목	과징금 폭탄 직전에야…폴크스바겐 “자발적 판매 중단” A12면
		내 용	폴크스바겐은 지난 21일 딜러들에게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32개 차종, 79개 모델 판매를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는 e 메일을 보냈음
		제 목	[간추린 뉴스] 가습기살균제 특위, 오늘부터 현장조사 A19면
		내 용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사흘간 정부 부처와 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제 목	[사설] 이제 항균필터에도 독성물질…국민은 불안하다 A30면
		내 용	항균필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조기에 모든 제품을 회수토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함. 3M이 우리나라에만 필터를 공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유해성 검증 결과도 국민에게 낱알이 공개해야 함

매체명	주 제	내 용	
동아	노동	제 목	“경제성장 끌고가는건 결국 제조업… 생산혁신-노동개혁 두바퀴 삼아야” A8면
		내 용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사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점으로 여겨진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 역량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제조 강국의 급부상으로 희석되고 있음
		제 목	임종룡 “은행 성과연봉제, 노조 직접 만나 설득” B2면
		내 용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면 노조위원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제 목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25일부터 현장조사 A5면
		내 용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부터 옥시 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함
		제 목	[기자의 눈/이은택]‘폴크스바겐의 호갱’ 불러온 한국 소비자들 A14면
		내 용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및 소음 조작으로 문제가 된 32개 차종(79개 모델)을 25일부터 자진해서 판매중단하기로 했음. 업계에서는 “과징금 폭탄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한경	노동	제 목	김해영 더민주 의원 “최저임금위에 청년 참여해야” 8면
		내 용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위원 3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 목	일자리 사라지는 중국…폭스콘도 짐쌀 준비 13면
		내 용	중국 공장 평균임금 월 424달러. “생산성·물류비 감안하면 미국 내 생산과 별 차이 없어” 중국 공식실업률은 꿈쩍않지만 실제 실업률 12.9% 추정
		제 목	정지선의 성공하는 실패학개론…”실패한 직원에 상 줍니다“ 15면
		내 용	현대백화점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직원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 이 상은 정지선 회장(사진)이 제안한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다.
		제 목	돈주고 경비원·미화원까지 고용한 ‘금속노조 문화제’ 28면
		내 용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재벌개혁 시민한마당’ 문화제는 경찰 추산 1만1000여명 참가. 뒷정리는 500만원 들여 청소용역업체에 맡겨 ‘술판’으로 얼룩진 그동안의 집회와 차별화했지만 ‘귀족노조’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줬다는 목소리.
		제 목	[한경에세이] 최저임금의 세 가지 문제점 33면
		내 용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저임금 동결/인상 논쟁보다 3가지 문제 해법 강구가 우선 : (1) 최저임금 미달자가 너무 많음 (2)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 (3) 사용자 측과 노동계 측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바뀌어야 함
		제 목	[사설] 청소 따위는 하청주면 그만이라는 귀족노조 집회 35면
		내 용	이기권 장관 말마따나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수 귀족노조의 파업은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행위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매경	노동	제목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런던처럼 금융허브 가능" 12면
		내용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지부장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의지 피력
		제목	[사설] 민노총 총파업·각종 시위로 얼룩진 주말 서울 도심 35면
		내용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살릴지, 대기업 노조가 먼저 해법을 제시하고 술선수범해야 한다.
	고용 복지	제목	서울시 추진한 청년수당, 논란만 남긴채 무산 전망 10면
		내용	서울시가 추진해온 '청년수당' 사업이 포퓰리즘 논란과 혼선만 남긴 채 무산될 전망이다.
	환경	제목	환경부·기업 엇박자에 비틀대는 '유해항균필터' 교체 15면
		내용	유해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함유된 항균필터가 쓰인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기기명을 22일 환경부가 공개한 이후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겨레	노동	제목	[사설] 소비자 안전 외면 이케아 엄격한 잣대로 조사하라 35면
		내용	정부,국내에서 판매되는 서랍장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 실시. 미국에서 6명의 유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이케아 '말름 서랍장'이 국내에서는 리콜되지 않고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거세져 행동에 나선 것.
		제목	"숫자놀이 매물" "소상공인 외면" 회의장 박차고 나왔죠 A13면
		내용	내년 최저임금은 금년대비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 비정규·청년·소상공인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에 참여한 일부 노동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최종안 표결 불참·퇴장
	고용 복지	제목	[2030 잠금해제] 왕자로부터의 자유와 노동자 / 박정훈 A25면
		내용	노동운동의 목표가 노동자가 자본가의 욕망을 위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운동은 여성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제목	5대 재벌그룹 '자산 쏠림' 심화...고용은 정체 A20면
		내용	30대 그룹 가운데 상위 5대 그룹은 지난해 자산이 927조9천억원으로 3년 새 15.5% 늘었지만, 고용 증가율은 5.1%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음
경향	노동	제목	공공기관 발주 100억 이상 공사도 '직접시공제' 추진 1면
		내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총 비용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
		제목	[단독]현대중, 희망퇴직 거부한 3명 '저성과자'로 첫 해고 10면
		내용	희망퇴직, 일부 사업부 분사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3명을 "업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
	고용 복지	제목	서울시, 3년5개월간 '복지 일자리' 6만개 만들었다 11면
		내용	서울시는 2013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벌이면서 총 6만601개의 일자리 창출
	환경	제목	[사설]설부른 에어컨 필터 유독물질 공개, 불안만 키웠다 27면
		내용	환경부는 에어컨·공기청정기 판매회사에 문제의 항균필터를 회수·수거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충분한 검증도, 분석도 없이 덜컥, 그것도 일부 잘못된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끝>